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21일(일) 오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시고, 다른 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하므로 유의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항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찍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협상을 통해 생활비용 증가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단체교섭의 역할이 중요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하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소득 분배의 방향이 바뀐 것은 국가의 임금 정책,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결과라고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도 1974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이 줄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없애는 법이 발효되었다. 영국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법의 결과이다.

[나] 시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누군가는 숙련도가 대동소이한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에게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나눠주는 할당제를 주장할 수 있다. 숙련도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자 우대 채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노동의 숙련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 비율을 조사하여 그 비율만큼 여성의 대학 교원 임명을 할당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바로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개인의 재능이나 업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도가 동일하다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직업에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갖고 있는 역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성, 인종, 나이, 계층 등)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비판해온 인본주의적 가치와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권리, 창의성,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집단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습니다. 금이 섞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수호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며,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계급의 사람들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급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손이 훌륭한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손의 혼에 무슨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손의 혼이 철이나 청동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결코 동정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서 농부나 장인이 되게 하고, 자손의 혼이 황금이나 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예우하여 통치자나 수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는 철이나 청동의 성분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삶을 꾀하게 된다. 본능을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혹은 사회가 이기심으로 팽배해진 후에야 그 본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인간이 하등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충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낙오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직 이성에서만 도출하여 이성과 본능을 대립시키는 합리주의적 도덕가들은 사회적 본능의 도덕적 자질을 평가절하하는 불

< 뒷면에 계속 >

합리를 저질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자연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이성에 비해 훨씬 깊은 도덕성의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김○○ 씨의 소득은 실직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기부양법’에 따라 정부가 2,500억 달러(약 310조 원)를 투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에는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371달러이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되면 작년 4분기 미국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6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크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씨는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것은 이러한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자와 1조 4,9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업 여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의 폐단을 보여준다.

[바] 사회 발전의 속도는 권력과 지능의 결합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한 세기 전 영국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도 육체노동의 굴레를 씌우면서 자원을 탕진했으며, 자기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하층 계급 성인들을 가모막았다. 그러나 학교와 제조업은 점차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각 세대의 똑똑한 아이들에게 지위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조치였다. 지능 지수가 13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었지만,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요구받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러더퍼드 같은 재벌,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 에드워드 엘가 같은 음악가가 나타났다. 문명은 둔감한 대중, 곧 일반적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문명은 창조적 소수, 곧 한 번의 손놀림으로 1만 명의 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총명한 소수, 유전적 세습을 생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가는 엘리트들에 달려 있다. 능력이 우월한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엘리트들의 권력은 한없이 커지고 있다. 발전이란 곧 엘리트들의 승리이며, 현대 세계는 엘리트들의 금자탑이다.

그렇지만 만약 사회 발전에 따르는 희생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은밀히 퍼지는 이기심의 희생양이 된다. 능력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풍조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명을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려지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자.

[사] 요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죠? 그중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예요.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인 개편뿐만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시예요. △△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로,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내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도입했고, 식당, 병원, 대형 마트, 금융 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자발적 성공,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는 대부분 일정한 과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들의 착취나 수탈이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모험정신이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문제도 사회적 조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의 문제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 즉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려야 할 대가로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은 불평등의 규모에 따른 게 아니라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곧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회정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 다음 장에 계속 >

[문제 I]

제시문 [가]~[마]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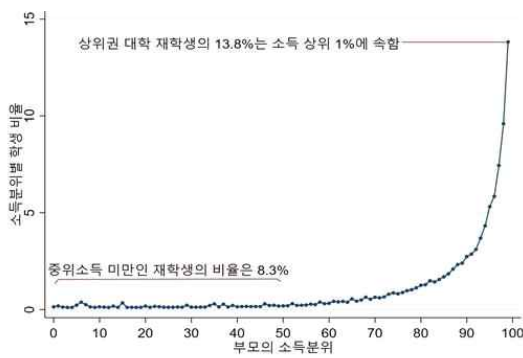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바], [사], [아]를 평가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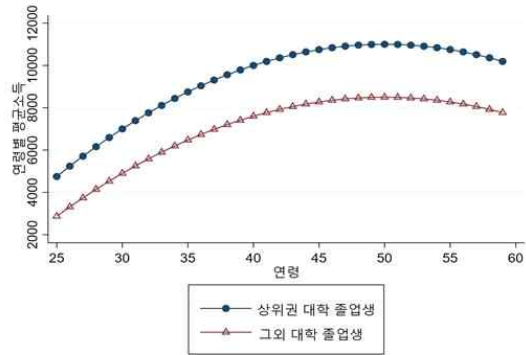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I]

국가 A에는 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기를 원하는 10개의 상위권 대학이 있다. 입학은 대학입학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자 K는 상위권 대학에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학생 부모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의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나 있다.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내에서 부모의 소득분위(x축)별 학생의 비율(y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분위가 99라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1>에서 소득분위 99에 해당하는 y값은 13.8로 이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13.8%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부모의 소득분위가 0에서부터 49까지의 학생 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되는데 이는 8.3%이다. <자료 2>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각 연령별 평균소득과 그 이외 대학 졸업생의 연령별 평균소득을 나타낸다.



<자료 1>



<자료 2>

(1) <자료 1>과 <자료 2>의 결과들이 [문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학생의 노력 $x(0 \leq x \leq \frac{1}{2})$ 와 부모의 소득 수준(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두 계층으로 구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그 이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부모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노력의 2배인 $2x$ 이며, 저소득층인 학생이 입학할 확률은 그 학생이 들인 노력 수준과 같은 x 이다. 학생이 들인 노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5x^2$ 이며 저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4x^2$ 이다. 국가 A의 화폐단위는 비트이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면 평생 동안 10비트의 소득을 얻으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9비트의 소득을 얻게 된다.

학생의 노력 수준이 임의의 x 일 때 부모가 고소득층인 학생의 순소득(평생소득-비용)의 기댓값과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각각 계산하여 x 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 각각에 대해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 수준을 구하시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를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 끝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1) 문항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협상을 통해 생활비용 증가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단체교섭의 역할이 중요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하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소득 분배의 방향이 바뀐 것은 국가의 임금 정책,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결과라고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도 1974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이 줄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없애는 법이 발효되었다. 영국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법의 결과이다.

[나] 시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누군가는 숙련도가 대동소이한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에게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나눠주는 할당제를 주장할 수 있다. 숙련도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자 우대 채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노동의 숙련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 비율을 조사하여 그 비율만큼 여성의 대학 교원 임명을 할당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바로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개인의 재능이나 업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도가 동일하다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직업에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갖고 있는 역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성, 인종, 나이, 계층 등)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비판해온 인본주의적 가치와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권리, 창의성,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집단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습니다. 금이 섞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수호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며,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계급의 사람들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급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손이 훌륭한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손의 혼에 무슨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손의 혼이 철이나 청동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결코 동정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서 농부나 장인이 되게 하고, 자손의 혼이 황금이나 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예우하여 통치자나 수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는 철이나 청동의 성분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삶을 꾀하게 된다. 본능을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혹은 사회가 이기심으로 팽배해진 후에야 그 본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인간이 하등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충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낙오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직 이성에서만 도출하여 이성과 본능을 대립시키는 합리주의적 도덕가들은 사회적 본능의 도덕적 자질을 평가절하하는 불합리를 저질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자연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이성에 비해 훨씬 깊은 도덕성의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김○○ 씨의 소득은 실직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터 고용주에게 해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기부양법’에 따라 정부가 2,500억 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에는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371달러이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되면 작년 4분기 미국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6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크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씨는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것은 이러한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자와 1조 4,9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업 여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의 폐단을 보여준다.

[문제 1]

제시문 [가]~[마]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관련하여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분배적 정의, 불평등, 차별 등의 개념은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엡킨슨 저, 장경덕 역	글항아리	2015	112	○
[나]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Daniel Be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29-68	○
[다]	『국가』	플라톤 저, 박종현 역	서광사	2008	84-85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미래엔	2019	109	○
[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트 니버 저,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2016	55	○
[마]	「‘실업급여’ 증독…일터 복귀 않는	김현석	한국경제신문	2020.	S6	○

	미국 근로자들」, 『한국경제신문』		문사	6.1.		
[바]	『능력주의』	마이클 영 저, 유강은 역	이매진	2020	29-30	○
[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1	○
[아]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80	○
	『히스토리야 대논쟁 2』	박홍순	서해문집	2008	84-85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로 구성되었다. 일반논술 문제는 응시생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작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수리논술 문제는 응시생의 자료해석 능력, 수리적 문제풀이능력과 수리적 추론 전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 1]은 정의라는 공정성의 가치 추구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의 정당성과 업적(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의 정당성을 비교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대비되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사회적 평등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분배방식이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높여주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관점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인종, 지역,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1>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1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5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5점

700자 이상: 감점 1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1>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마]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 업적(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다루고 있다. [가]와 [라]는 사회적 조건에서 열세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있으며 [나], [다], [마]는 개인의 우수한 자질 계발을 독려하는 능력주의 혹은 업적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 [라]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 [다], [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1]

[가]-[마]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 업적(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다루고 있다. [가]와 [라]는 사회적 조건에서 열세에 있는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나], [다], [마]는 개인의 우수한 자질 계발을 독려하는 능력주의 혹은 업적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임금 격차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한 예이고, [라]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사회적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자연 상태 인간의 이타적 본능에서 찾고 있다.

반면 [나]의 견해는 사회적 소수 그룹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할당은 개인의 정체성이 그룹이 아닌 개개인의 자유와 자질, 창의성에 있다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충돌한다. [다]는 타고난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고, [마]는 실업급여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소득재분배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511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II) 문항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협상을 통해 생활비용 증가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단체교섭의 역할이 중요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하고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피케티는 프랑스에서 소득 분배의 방향이 바뀐 것은 국가의 임금 정책, 특히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결과라고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도 1974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이 줄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임금 차별을 없애는 법이 발효되었다. 영국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법의 결과이다.

[나] 시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누군가는 숙련도가 대동소이한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에게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나눠주는 할당제를 주장할 수 있다. 숙련도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자 우대 채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노동의 숙련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 비율을 조사하여 그 비율만큼 여성의 대학 교원 임명을 할당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바로 모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개인의 재능이나 업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도가 동일하다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직업에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갖고 있는 역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성, 인종, 나이, 계층 등)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비판해온 인본주의적 가치와 정반대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권리, 창의성,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아무리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집단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습니다. 금이 섞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수호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며,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계급의 사람들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급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손이 훌륭한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손의 혼에 무슨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자손의 혼이 철이나 청동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결코 동정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서 농부나 장인이 되게 하고, 자손의 혼이 황금이나 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예우하여 통치자나 수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는 철이나 청동의 성분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나 수호자가 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삶을 꾀하게 된다. 본능을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혹은 사회가 이기심으로 팽배해진 후에야 그 본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인간이 하등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군집 충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낙오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오직 이성에서만 도출하여 이성과 본능을 대립시키는 합리주의적 도덕가들은 사회적 본능의 도덕적 자질을 평가절하하는 불합리를 저질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자연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이성에 비해 훨씬 깊은 도덕성의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김○○ 씨의 소득은 실직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터 고용주에게 해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기부양법’에 따라 정부가 2,500억 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에는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371달러이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되면 작년 4분기 미국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6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크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씨는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경기부양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것은 이러한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자와 1조 4,9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업 여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의 폐단을 보여준다.

[바] 사회 발전의 속도는 권력과 지능의 결합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한 세기 전 영국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도 육체노동의 굴레를 씌우면서 자원을 탕진했으며, 자기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하층 계급 성원들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학교와 제조업은 점차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각 세대의 똑똑한 아이들에게 지위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조치였다. 지능 지수가 13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었지만,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요구받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러더퍼드 같은 재벌,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 에드워드 엘가 같은 음악가가 나타났다. 문명은 둔감한 대중, 곧 일반적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문명은 창조적 소수, 곧 한 번의 손놀림으로 1만 명의 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총명한 소수, 유전적 세습을 생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가는 엘리트들에 달려 있다. 능력이 우월한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엘리트들의 권력은 한없이 커지고 있다. 발전이란 곧 엘리트들의 승리이며, 현대 세계는 엘리트들의 금자탑이다.

그렇지만 만약 사회 발전에 따르는 희생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은밀히 퍼지는 이기심의 희생양이 된다. 능력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풍조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명을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려지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자.

[사] 요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죠? 그중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예요.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시예요. △△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로,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내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도입했고, 식당, 병원, 대형 마트, 금융 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자발적 성금,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는 대부분 일정한 과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들의 착취나 수탈이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모험정신이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배 문제도 사회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배의 문제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 즉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려야 할 대가로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은 불평등의 규모에 따른 게 아니라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곧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회정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바], [사], [아]를 평가하십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관련하여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분배적 정의, 불평등, 차별 등의 개념은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 앳킨슨 저, 장경덕 역	글항아리	2015	112	○
[나]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Daniel Be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29-68	○
[다]	『국가』	플라톤 저, 박종현 역	서광사	2008	84-85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미래엔	2019	109	○
[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트 니버 저,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2016	55	○
[마]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한국경제신문사	2020. 6.1.	S6	○
[바]	『능력주의』	마이클 영 저, 유강은 역	이매진	2020	29-30	○
[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1	○
[아]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80	○
	『히스토리야 대논쟁 2』	박홍순	서해문집	2008	84-85	○
<자료 1>, <자료 2>	「Income Segrega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Chetty 외	Oxford University	Forthcoming		○

	Acros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ress			
--	---	--	-------	--	--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II]는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사],[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바]는 선천적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자원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희생과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가],[라]의 관점과 유사하다.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아]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업적만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나],[다],[마]의 관점과 유사하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④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⑤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⑥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④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⑤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문제 II> (601~700자)

 -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400자~500자 미만: 감점 1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5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5점
 - 800자 이상: 감점 10점
-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문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의 예를 참조)
- [가],[라]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 기회, 지위와 같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최선을 다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바]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라]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옹호하는 [바]와 입장을 같이한다.
 - [나],[다],[마]의 관점에서 보면, [바]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라]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와 맥을 같이한다.
 - [나],[다],[마]의 관점에서 보면, [사]는 업적(능력)과 무관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성취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는 질병이나 가난 등의 타고난 환경에 의해 업적을 쌓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나],[다],[마]의 관점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아]와 유사하다.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I]

(1) [가],[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정의로운 분배 기준에 관한 위의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가], [라]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소득, 기회, 지위와 같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바]는 선천적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아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때 다수의 대중이 희생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바]는 [가], [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기회와 지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배리어 프리’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 [라]의 관점과 유사하다. [아]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업적만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가], [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는 질병이나 가난 등의 타고난 환경에 의해 업적을 쌓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680자)

(2) [나], [다],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정의로운 분배 기준에 관한 위의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나], [다], [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각자가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바]는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자원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희생과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희생된 다수를 위한 재분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 [다], [마]의 관점에서 보면, [바]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사]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와 지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나], [다], [마]의 관점에서 보면, [사]는 업적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면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성취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아]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업적만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아]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나], [다], [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695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III)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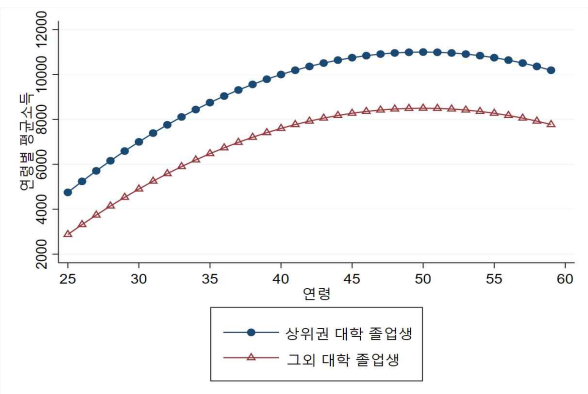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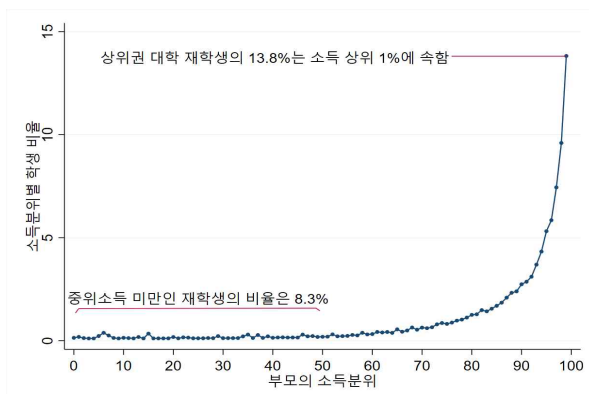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는 대부분 일정한 과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들의 착취나 수탈이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모험정신이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문제도 사회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의 문제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 즉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로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은 불평등의 규모에 따른 게 아니라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곧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회정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논제 III]

국가 A에는 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기를 원하는 10개의 상위권 대학들이 있고 대학입학시험 결과에 따라 입학이 결정된다. 연구자 K는 상위권 대학들에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학생 부모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아래의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나 있다.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내에서 부모의 소득분위(x축)별 학생의 비율(y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분위가 99라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1>에서 소득분위 99에 해당하는 y값은 13.8로 이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13.8%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부모의 소득분위가 0에서부터 49까지의 학생 비율을 모두 합해서 계산되는데 이는 8.3%이다. <자료 2>는 상위권 졸업생의 각 연령별 평균소득과 그 이외 대학 졸업생의 연령별 평균소득을 나타낸다.



(1) <자료 1>과 <자료 2>의 결과들이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학생의 노력 $x(0 \leq x \leq \frac{1}{2})$ 와 부모의 소득 수준(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두 계층으

로 구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그 이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부모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노력의 2배인 $2x$ 이며, 저소득층인 학생이 입학할 확률은 그 학생이 들인 노력 수준과 같은 x 이다. 학생이 들인 노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5x^2$ 이며 저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비용은 $4x^2$ 이다. 국가 A의 화폐단위는 비트이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면 평생 동안 10비트의 소득을 얻으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9비트의 소득을 얻게 된다.

학생의 노력 수준이 임의의 x 일 때 부모가 고소득층인 학생의 순소득(평생소득-비용)의 기댓값과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각각 계산하여 x 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 수준을 고소득층에 속하는 학생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 각각에 대해 구하시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를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관련하여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업적(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분배적 정의, 불평등, 차별 등의 개념은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각 제시문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가]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엡킨슨 저, 장경덕 역	글항아리	2015	112	○
[나]	「On meritocracy and equ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Daniel Be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29-68	○
[다]	『국가』	플라톤 저, 박종현 역	서광사	2008	84-85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미래엔	2019	109	○
[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트 니버저,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2016	55	○
[마]	「'실업급여' 증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한국경제신문사	2020. 6.1.	S6	○
[바]	『능력주의』	마이클 영 저, 유강은 역	이매진	2020	29-30	○
[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1	○
[아]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80	○
	『히스토리야 대논쟁 2』	박홍순	서해문집	2008	84-85	○

<자료 1> <자료 2>	「Income Segregation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Acros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hetty 외	Oxford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O
------------------	--	----------	-------------------------	-------------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Ⅲ]은 교육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이 분배적 정의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기댓값과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차함수(혹은 수학Ⅱ 교과서의 도함수)를 이용하여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의 답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과정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 ㉠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 <문제 Ⅲ>**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 ㉡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 <문제 Ⅲ>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 <자료 1>에서 상위권 대학에 고소득층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자료 2>에서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이 높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음을 설명했으면 가점 10점. 자료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근거가 됨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업적(능력)을 기준으로 한 분배

를 중시하는 제시문들을 비판하면 가점 10점.

- ② 고소득층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순수입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구했으면 가점 5점
- ③ 고소득층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각각에 대해 순수입을 최대로 하는 노력수준을 정확하게 구했으면 가점 5점
- ④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같은 수준의 노력을 통해 기대되는 소득이 작아 노력을 적게 하게 되고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제시문 [아]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으면 가점 10점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Ⅲ]

(1) <자료 1>은 상위권 대학 재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자료 2>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이 더 큰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성적에 따른 대학입학이 고소득층 자녀들이 상위권 대학 입학을 통해 큰 경제적 보상을 얻는, 즉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업적(능력)에 따른 배분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다],[마]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① 1) 고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

$$=2x \times 10 + (1-2x) \times 9 - 5x^2 = -5x^2 + 2x + 9 = -5\left(x - \frac{1}{5}\right)^2 + \frac{46}{5}$$

2)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

$$=x \times 10 + (1-x) \times 9 - 4x^2 = -4x^2 + x + 9 = -4\left(x - \frac{1}{8}\right)^2 + \frac{145}{16}$$

② 따라서 고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수준은 $\frac{1}{5}$ 이며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는 노력수준은 $\frac{1}{8}$ 이다.

(미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도 무방하다.)

고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미분하면 $-10x + 2$ 이고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 에서 기댓값은 최대가 된다. 이를 만족시키는 x 는 $\frac{1}{5}$ 이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순소득의 기댓값을 미분하면 $-8x + 1$ 이고 이를 0으로 만드는 x 는 $\frac{1}{8}$ 이다.

③ 제시문 [아]는 능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계산결과는 주어진 노력 수준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의 상위권 대학 입학확률이 고소득층 학생의 입학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이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아]를 비판할 수 있다.